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 제44차 프로그램예산행정위원회(PBAC) 참석

과제명

- 2026년 WHO 주요 이슈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연구

출장기간

- 2026.05.12(화)~2026.05.17(일)

출장국가(도시)

- 스위스(제네바)

출장자

- (보건복지부) 장서의 국제협력관, 김지혜 사무관, 김다현 주무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현경 연구원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05.12	스위스(제네바)	-	-	출국
05.13-05.15	스위스(제네바)	WHO 본부	회원국 대표단	제44차 PBAC 참석
05.16-05.17	한국(인천)	-	-	귀국

2 출장 주요내용

① 출국

일 시	05.12(화) 11:20 (한국) ~ 21:55 (제네바)
장 소	한국 인천 국제공항 → 스위스 제네바 국제공항
참석자	조현경 연구원
- 출국 및 숙소 도착	
②	제44차 PBAC 참석 및 모니터링
일 시	2026.05.13(수) 09:30~18:00
장 소	WHO 본부
참석자	대표단, 조현경 연구원
<p>Item 2.1 IEOAC(Independent Expert Oversight Advisory Committee): annual report</p> <p>□ 회원국 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국가들은 비즈니스 관리 시스템(Business Management System, BMS)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일정 지연, 비용 상승, 시스템 통합 및 2026년 IPSAS(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준수 관련 재정 결산 리스크에 대해 우려하며 구체적인 리스크 완화 조치와 향후 계획을 요구함(일본, 스페인, 대한민국, 네팔, 독일). ○ 회원국은 조직 재편 과정에서 감독 및 책임 기능(감사, 리스크 관리 등)의 공식 문제를 지적하며, 인력 배치 현황 비교와 공정한 지리적 배분을 강조함(일본, 대한민국, 중국, 독일). ○ 회원국은 자금 조달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 그리고 평가 권고안의 실제 이행률 제고의 필요성을 언급함(짐바브웨, 대한민국, 이집트, 중국). <p>□ 사무국 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MS가 전 세계적인 복합 기술 플랫폼 투자임을 설명함. 초기 계획 비용 7,700만 달러에서 요구 사항 명확성 등으로 인해 1억 3,300만 달러로 조정되었고, 파트너사의 이행 실패와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2025년 말 기준 약 1억 5,000만 달러가 지출되었다고 언급함. 	

- 인력 공석 문제에 대해 조직 규모가 22% 축소되는 과정에서도 감독 기능의 무결성을 유지하려 노력 중이며, IOS(Office of Internal Oversight Services) 국장직은 후보자 명단을 작성 중이며 수사관 및 포렌식 전문가 직위도 곧 공고될 예정이라고 밝힘.
- 사무국은 성착취, 학대 및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부문에서 WHO가 UN 시스템 내 리더십을 인정받은 점을 강조했다.
- 의장은 해당 의제와 관련된 위원회의 지침과 권고 사항이 공식 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논의를 마무리함.

Item 3.1 Results report (Programme budget 2024-2025: performance assessment and financial report and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year ended 31 December 2025)

Item 3.2 Financing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budget 2026-2027

- Reporting on operational efficiencies

Item 3.10 Human resources: Annual Report

□ 위원회는 집행이사회를 대신하여 보건총회가 item 3.1, 3.2, 3.10(A79/21, A79/21 Add.1에 한함)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함. 사무국이 이행해야 하는 지침은 의제별로 다음과 같음.

○ Item 3.1, 3.2 관련 5가지 지침은 다음과 같음.

- (1) 결과 기반 관리, 모니터링 및 보고의 지속적인 강화와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 (2) 조직의 3단계 전체에 걸쳐 공평하고 투명한 자원 배분 추진 노력을 지속하되, 특히 국가 수준의 이행 역량과 재원이 부족한 성과 영역에 초점
- (3) 예측이 가능하고 유연하며 지속 가능한 금융 동원을 위한 회원국과의 협력 지속
- (4) 우선순위 재조정 시 WHO의 핵심 임무, 기관 고유의 지식 및 국가 지원 기능 보호와 직원 웰빙 고려
- (5) 현재 회기 중 자금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적인 업데이트 및 제공

○ Item 3.10 관련 4가지 지침은 다음과 같음.

- (1) 고위직 및 상급 직급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포함하여,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공평한 지리적 대표성 강화 가속화
- (2) 공평한 지리적 대표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고위직을 포함한 모든 수준의 성별 균형 증진 지속
- (3) 국가 수준의 인적자원 역량 강화 지속
- (4) 직원의 정신건강 및 웰빙 증진을 위한 지원 조치 및 이니셔티브 강화 지속

□ 사무국 보고

- Item 3.1, 3.2 관련 5가지 지침은 다음 2024-2025년 성과 보고서가 GPW 13에 따른 최종 평가임을 설명함. 주요 성과로 건강 증진 분야의 진전을 꼽았으나, 보편적 의료 보장과 보건 비상사태 분야는 SDG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하는 불균형한 진전을 보였음을 밝힘.
- 인력 재조정 과정에서 IHR을 포함한 보건 안보와 규범 설정 등 핵심 의무를 보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 절감액은 인건비와 활동비에서 각각 절반씩 발생했음을 보고함.
- 2026-2027년 예산이 42.2억 달러로 축소되었으며, 현재 90%의 자금이 확보되었으나 약 4.07억 달러의 부족분이 남아있음을 언급함. 자금 조달 환경에서 지정 기여금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우려하며, 비중을 낮추기 위해 회원국들의 유연한 기여가 필수적이며, 다자개발은행(MDB) 및 자선단체 등으로 기부 기반을 다각화하고 있다고 설명함.
- 2025년 말 기준 WHO 인력이 전년 대비 9.4% 감소한 8,569명을 기록했으며, 2026년 초에는 7,981명으로 추가 감소했다고 보고함. 지리적 대표성 개선을 위해 과다 대표 국가 비율을 낮추고 미충족 국가의 인재를 영입할 기회를 확보하고 있으며, 직원 웰빙을 위한 심리사회적 위험 평가를 2026년에 실시할 계획임을 밝힘.

□ Tedros Adhanom Ghebreyesus 사무총장은 핵심 권한과 비교우위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지정 기여금을 부족한 분야로 재프로그래밍하는 등의 유연한 자금조달을 제안했음. 인력 재조정이 투명성, 공정성, 인본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강조함. 의무 분담금 인상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퇴직 협력이 강제 이직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했음을 밝힘. 보건 비상사태 대응에 있어 WHO는 갈등 지역의 운영 서비스보다 감시와 조기 탐지라는 핵심 역량에 집중해야 하며, 분담금 인상이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함.

□ 회원국 발언

- 회원국은 지정 자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우려하며, 분담금 인상과 함께 예측 가능하고 유연한 자금 기여를 지지함(이집트, 짐바브웨, 폴란드, 사이프러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에티오피아).
- 회원국은 타 UN 기구와의 중복을 피하고 WHO만이 가진 강점인 규범 설정과 기술적 지원에 자원을 집중할 것을 요청함(일본, 영국, 멕시코, 태국).
- 회원국은 특정 국가의 인재가 소외되지 않도록 고위직을 포함한 모든 수준에서 지리적 균형을 맞추고, 투명한 채용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을 강조함(대한민국, 일본, 러시아, 멕시코, 중국, 인도네시아).

- 회원국은 인력 감축이 직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특히 취약 국가를 지원하는 국가 사무소의 운영 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함(스페인, 폴란드, 태국, 파나마, 소말리아, 네팔).
- 의장은 논의를 마무리하며 위원회가 결과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수용하고, 사무국에 전달할 의제별 지침이 포함된 요약문에 합의했음을 선언함. 특히, 인사 관련 논의에서 지리적 대표성과 성별 균형 및 국가 수준의 역량 강화라는 핵심 원칙이 지침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함.

Item 3.3 Status of collection of assessed contributions, including Member States in arrears in the payment of their contributions to an extent that would justify invoking Article 7 of the Constitution Amendments to the Financial Regulations and Financial Rules

- 위원회는 집행이사회를 대신하여 보건총회가 결의안 초안을 채택할 것을 권고함.
- 이집트는 지역의 분담금 납부 관련 유연성에 감사를 표했고, 이란은 자국의 분담금 납부 지연 상황을 설명함.
 - 이집트는 분담금이 적기에 전액 납부되어야 기구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강조함. 2025년 말 기준 수납률이 낮아 조직의 유동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함. 경제적·인도적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을 위해 헌법 제7조(Article 7)와 관련하여 제공된 유연한 조치들에 사의를 표함. 최신의 UN 산정 비율 및 국제 공공부문 회계기준(IPSAS)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지지함.
 - 이란은 미국의 일방적 제재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제재로 인해 국제 자금 이체 채널이 차단되어 분담금 납부가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고 언급함. 또한, 최근 WHO 내부의 금융 거래 촉진 방식 변화가 납부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하며, 제한적인 조건에서 분담금을 처리하는 과정의 복잡성을 지적함.
- 사무국 답변
 - 동지중해 지역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여 재무 규정 범위 내에서 납부 일정 조정 등 유연성을 제공해 왔으며 이를 계속 지원할 것임. 이란의 경우, WHO의 규칙이나 자금 수취 절차에는 변경이 없음을 명확히 함. 현재 중개 약정(Intermediary arrangement)을 통해 이란의 자금 이체를 돕고 있으며, 현재 자금이 중개 단계에 있어 WHO에는 아직 입금되지 않았음을 설명함.
 - 이란의 발언과 관련해 WHO의 자금 수취 정책은 변경되지 않았음을 재확인함. 과거 UNDP를 통해 자금이 전달되던 사례 등을 포함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총회 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제안함.

Item 3.7 Report of the External Auditor

Item 3.8 Report of the Internal Auditor

Item 3.9 External and internal audit recommendations: progress on implementation

□ 회원국 발언

- 회원국은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 의견을 환영하고 권고안 이행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일본, 태국, 노르웨이). 일부 회원국은 내부 통제 효과성 수치의 하락이나 시스템 지연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시스템 안정화를 촉구했음(대한민국, 러시아, 벨라루스).
- 여러 국가가 자원 동원 전략의 필요성과 지정 기여금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일본, 멕시코, 독일, 노르웨이). 한편, 외부 감사와 내부 감사 보고서를 분리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했고 지역 및 국가 사무소 수준의 잔존 위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음(일본, 러시아, 벨라루스, 파나마).

□ 감사인 답변

- 외부 감사인은 과거 권고안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장들과 별도 회의를 가졌으며, BMS 구현이 권고안 폐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음.
 - 내부 감사 대행 이사는 잔존 위험 관리와 보증 매핑(assurance mapping) 작업을 진행 중이며, 조사 부서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임을 설명했다.
 - 감사 총괄 대행인 Mr. Sushil Rathi은 2025년에만 역대 최고치인 421개의 권고안을 폐쇄했으며, 미결 권고안의 57%는 아직 이행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또한 BMS 시스템 교육을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Dr. Gaudenz Silberschmidt는 파트너십 및 자원 동원 전략이 6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변동성이 큰 환경을 고려해 구속력 있는 목표치는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WHO 재단과 관련하여 기금 전달 목표치에 대한 외부 감사인과의 해석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정비하겠다고 답변했음.
- 위원회는 집행이사회를 대신하여 보건총회에서 외부 감사인의 보고서를 수락하고 나머지 보고서들을 유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음. 또한 사무국이 감사 권고 사항을 적시에 대응하고, 특히 국가 수준에서 반복되는 감사 항목들을 해결하도록 지침을 제공한다고 언급했음.

Item 3.11 Reform of the Global Health Architecture(GHA) and the UN80 initiative

- 위원회는 보건총회가 문서 A79/24에 명시된 Global Health Architecture 개혁 및 UN80 이니셔티브 지원을 위한 공동 프로세스를 수립(Establish)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음.

□ 비공식 세션에서 제기된 공동 의장 구성 및 보고 체계 등에 대한 회원국의 요청을 반영하여 권고안 초안을 수정했으며, 합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태스크포스의 공동 의장 2인은 개발도상국 대표 1인과 선진국 대표 1인으로 구성함.

○ 회원국과의 월간 글로벌 협의 및 정보 세션은 제네바에서 개최함.

○ 태스크포스는 2개의 보고서를 작성함. 첫 번째는 2026년 11월~2027년 2월 사이에 관련 기구들의 피드백을 받기 위한 중간 보고서이며, 두 번째는 제80차 세계보건총회에 제출될 최종 보고서임. 또한, 공동 프로세스의 이행을 위해 사무총장이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소집하고 2027년 제80차 세계보건총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 회원국 발언

○ 회원국은 WHO의 중심적이고 선도적인 역할과 핵심 권한을 지지함(일본, 대한민국, 사이프러스, 벨기에, 독일).

○ 회원국은 비공식 협의 및 충분한 검토 시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네팔, 파키스탄, 중국, 인도네시아), 개혁 과정에서의 포용성, 투명성 및 시민 사회와 비국가 행위자의 참여를 촉구함(대한민국, 네팔, 파나마, 사이프러스, 스웨덴, 벨기에, 캐나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평한 접근성과 ODA 유지를 강조함(파키스탄, 중국, 멕시코, 에티오피아).

□ 사무국 답변

○ Dr. Bruce Aylward는 이번 개혁의 3대 목표로 정렬(Alignment), 조정 및 협력 강화(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자립(Self-reliance)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을 제시했음. 태스크포스의 구성과 관련하여 회원국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지역별 배분을 통해 균형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또한, 태스크포스는 의사결정 기구가 아닌 자문 기구이며 최종 결정은 보건총회와 각 기구의 이사회에 달려 있음을 명확히 했음. 자원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 내 자원을 우선 활용하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음.

일 시	2026.05.14(목) 09:30~18:00
장 소	WHO 본부
참석자	대표단, 조현경 연구원

Item 2.2 WHO's action on United Nations System-wide action plans

- Progress towards achieving the United Nations System-wide Action Plan on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UN SWAP)

Item 2.3 Compliance, Risk Management and Ethics: annual report

Item 2.4 Reports of the Joint Inspection Unit(JIU)

- 위원회는 사무국에 향후 이행 지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했음. 위원회는 UN-SWAP 3.0 준수 진행 상황을 가속화하고, 조직 문화를 강화하며 지속적인 역량 개발에 투자할 것을 사무국에 권고했음. 또한 여성의 평등한 대표성과 포용적인 조직 문화에 중점을 두고 성별 균형을 진전시킬 것을 명시했음.
- 기존의 내부고발(신고) 채널에 대한 신뢰도와 접근성을 높여 불이익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고 조직 전반의 책임성을 증진할 것임. 또한,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와 위험 수용 범위를 세 단계의 조직 수준(본부, 지역, 국가) 전체에 운영하고 운영 계획 및 관리 시스템에 통합할 것임.
- 전략적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신규 위험을 검토하고 위험 완화 조치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임. 합동감사단(JIU)의 권고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행하되, 특히 프로그램 예산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
- 회원국 발언
 - 회원국은 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에 대한 UN SWAP에 대해 강화된 기준 도입에도 불구하고 WHO가 보여준 리더십과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다만, 고위직의 성별 균형 부족과 조직 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실행 가능한 조치를 요구함(스페인, 태국, 일본, 대한민국, 파나마). 또한, 의사결정을 위해 더 상세하고 투명한 예산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함(태국, 대한민국, 러시아, 멕시코, 중국).
 - 회원국은 위험 관리 및 불이익 방지와 관련하여, 위험 관리를 일상적인 업무에 통합하고 불이익 방지를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접근이 가능한 보고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태국, 일본, 짐바브웨, 파나마, 독일). 회원국은 조직 개편에 따른 준법 기능의 이전이 독립성과 효과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거나, 비국가 행위자 참여 프레임워크(Framework of engagement with non-state actors, FENSA)의 역동적인 위험 모니터링 필요성을 언급함(러시아, 중국).

□ 사무국 답변

- 합동감사단(JIU)는 WHO의 권고안 수용 및 이행률이 UN 시스템 평균보다 높음을 인정함. 특히 예산 보고 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권고 3, 4번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음. UN-SWAP 지표의 기준이 강화되어 점수가 낮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성과는 개선되었음을 설명함.
- 윤리, 위험 관리 및 준법 부서(Ethics, Risk Mgmt, Due Diligence and Non-State Actors, ERD)는 보복 방지 정책에 따라 모든 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위험 관리 모듈을 BMS에 통합하여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힘. 준법 기능의 이전은 업무 중단 없이 진행되었으며 사기 및 부패 위험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을 언급함.
- Imre Hollo는 JIU 권고 사항 중 일부는 이미 2026-2027 프로그램 예산안에 반영되었다고 언급함.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상세한 활동 및 인건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산 사이클의 현실적인 한계 내에서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힘.
- 독립전문가자문감독위원회(IEOAC)는 준법 기능을 운영 부서와 더 가까운 비즈니스 운영부로 이전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위원회에서도 이를 지지함.

□ 의장은 회원국들의 활발한 논의와 사무국의 답변에 사의를 표했음. 특히 러시아가 제안하고 짐바브웨가 찬성한 '프로그램 예산의 투명성 개선 노력 지속'이라는 문구를 JIU 관련 권고안(g)에 추가하기로 합의했음.

Item 4.1 Report by the Officers of the Executive Board on future modalities of the governance reform pilot

- 위원회는 집행이사회가 문서 EB159/4의 보고서와 문서 EB159/4 Add.1에 포함된 결정 초안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기로 합의함.
- 이 결정 초안은 보고서에 제시된 매개변수에 기초하여 파일럿 이행을 시작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특정 요소들에 대해 회원국들이 계속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파일럿 이행 후에는 평가 조치를 통해 그 결과를 검토하고, 제162차 집행이사회를 거쳐 2028년 세계보건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회원국 발언

- 회원국은 거버넌스 개혁 파일럿 이행 및 추진을 지지함(스페인, 태국, 일본, 노르웨이, 벨기에, 캐나다, 호주). 표준화된 서식과 타임라인 및 체크리스트 도입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적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평가함(폴란드, 태국, 대한민국, 파나마, 멕시코).

- 회원국의 주도권과 포용성을 유지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임을 강조함(폴란드, 짐바브웨, 사이프러스(EU), 호주). 공중보건 비상사태나 인도적 위기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유연성(flexibility)을 발휘해야 함을 주장함(이집트, 파나마, 독일, 멕시코).
- 회원국은 기술적·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국가나 소규모 대표단이 소외되지 않도록 형평성과 지역적 균형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이집트, 짐바브웨, 파나마, 멕시코, 호주). 또한, 개혁의 성공을 위해 회원국들의 자기 절제(self-discipline)와 사무국의 조정 및 지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함(일본, 독일, 벨기에, 호주).

□ 사무국 답변

- 사무국(Ms. Sigrid Kranawetter)은 독일의 제안(안전별 역량 공개)에 대해 현재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이를 수행하려면 격년 당 약 674,000달러의 비용과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음.
- 사무국(ADG/BOS)은 이미 결의안이나 결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비용 산정 문서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음. 또한 총회나 집행이사회에서는 시간 제약으로 인해 모든 안전을 시작할 때 발표하기 어려운 배경이 있음을 덧붙였음. 문서 EB159/4 Add.2의 계시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비용 산정 관련 문서이며 곧 업로드될 예정이라고 해명하고 사과했음.

Item 4.2 Evaluation: annual report

- 위원회는 item 4.2에 대해 문서 EB159/5에 포함된 보고서를 집행이사회가 주목할 것을 권고했으며, 사무국 이행을 위한 2가지 지침을 포함한 권고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음.
- 첫 번째는 평가를 위한 적절하고 예측이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자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 조치 시행이며, 두 번째는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의 평가 기능 역량 강화 및 평가 권고안의 이행 현황 모니터링 강화임.

□ 회원국 발언

- 회원국은 2024년에 채택된 개정 평가 정책에 따른 진전과 평가 완료율이 26%에서 70%로 증가한 점, 그리고 평가의 품질이 향상된 점을 높이 평가했음(일본, 파나마, 벨기에, 영국). 평가 결과가 운영, 프로그램 개혁, 자원 할당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함(일본, 파나마, 벨기에, 독일, 영국). 다만, 60일 이내의 행정부 응답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점(6%)과 권고안 이행 속도가 느린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가속화하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촉구했음(파나마, 독일, 영국).
- 회원국은 지역 및 국가 사무소 수준에서의 평가 역량 강화와 평가 기능의 독립성, 공정성, 신뢰성 유지가 중요함을 언급했음(짐바브웨, 영국). WHO의 조직 개편 및 우선순위 재정립 프로세스가 프로그램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와 브리핑을 요청했음(러시아, 독일).

□ 사무국 답변

- 주요 성과 지표(KPI)에 따라 향후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난 PBAC에서 승인된 작업 계획에 따라 평가가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함. 평가는 영향력을 통해 그 가치를 증명하며, WHO는 학습 조직으로서 평가 보고서에서 얻은 교훈을 실제 결정에 어떻게 통합하고 운영하는지 작업 중임.
- IOS는 조직 개편 및 우선순위 설정 프로세스에 대한 감사와 평가를 제안했으며, 리더십 차원에서 최선의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함. 재정적 제약 속에서도 승인된 작업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평가 기능은 IOS 내에 위치하여 재정적, 운영적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언급함.

Item 4.3 Statement by the representative of the WHO staff associations

□ 의장은 WHO 직원들이 조직의 매우 중요한 자원임을 강조하며 감사를 표했음. 위원회는 해당 보고서를 집행이사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음. 또한 논의된 지침과 회원국들의 제안 사항들을 위원회 보고서에 반영하여 집행이사회에 전달하기로 합의했음.

□ 회원국 발언

- 회원국은 직원 복지 및 사회심리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함(태국, 짐바브웨, 세네갈, 호주, 독일). 조직 재편 및 인력 감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소통 강화를 촉구함(태국, 일본, 대한민국, 중국, 독일, 세네갈). 직원 협회와의 조기 소통, 구조조정의 논리적 근거 공개,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불안감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발언했음.
- 회원국은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및 인공지능(AI) 활용을 제안함(태국, 중국, 독일). AI가 직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국가 및 지역 수준의 기술 역량 유지와 지속 가능한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함(짐바브웨, 세네갈). 특히 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하여 발언한 짐바브웨는 인력 감축이 취약 지역이나 응급 상황에서의 현장 대응 능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되며, 지속 가능한 재정(Sustainable financing)이 인력 안정성의 기초임을 언급했음.

□ 사무국 답변

- 사무국은 지난 1년간 본부 차원에서 매주 최소 1회 이상 직원 협회와 만나 소통해 왔음을 확인했음. 사무총장 또한 매달 빠짐없이 직원 협회와 직접 대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사무총장은 지역 국장들에게 옴부즈맨 및 직원 상담사 역량을 강화할 것을 공식 요청했음. 인공지능(AI)은 인력 감축 수단이라 아니라 직원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며,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음.

Item 4.4 Hosted Partnerships

- Report on hosted partnerships
- Review of hosted partnerships

□ 위원회는 Hosted Partnerships에 관한 보고서(Document EB159/6)와 검토 보고서(Document EB159/7)를 집행이사회에 권고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채택함.

□ 회원국 발언

- 회원국은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가 혁신적 보건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함(일본, 스페인, 대한민국, 태국, 파나마). 파트너십의 활동이 WHO의 핵심 권한 및 GPW 14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긴밀하게 일치해야 함을 강조함(네팔, 태국, 파나마).
- 회원국은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선, 투명한 보고 체계 유지, 완전한 비용 회수를 통한 WHO의 재정적 부담 방지 등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요구함(대한민국, 태국, 파나마).
- 회원국은 정기적인 검토와 회원국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파트너십의 투명성과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함(스페인, 태국, 중국).

□ Dr. Gaudenz Silberschmidt는 회원국들이 Hosted Partnerships에 대해 보여준 지지에 감사를 포함.

□ 의장은 회원국들로부터 제기된 특별한 질문이 없었으므로 추가적인 답변이나 논의 없이 세션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힘.

④	제44차 PBAC 참석 및 모니터링
일 시	2026.05.15(금) 09:30~12:00
장 소	WHO 본부
참석자	대표단, 조현경 연구원
<p>□ 의장은 제44차 PBAC의 모든 의제 심의가 전날 마무리되었음을 알리며 보고서 채택 및 회의 종료를 선언했음. 사무국은 총 12개의 보고서 초안을 배포했으며 보고서는 배포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채택되었음. 회의 방법과 관련하여 중요 주제에 대한 발언 시간을 PBAC members 3분, Group statements 4분으로 연장하기로 했음.</p> <p>□ 감사 조치에 대해 위원회는 2025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의 적정 의견을 환영했음. 2025년에 부적정 감사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장기 미결 권고안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명확한 책임 소재와 현실적인 기한 설정을 요청했음. 또한 BMS 도입 지연과 새로운 국제 공공부문 회계기준 적용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완화 조치를 요청했음.</p> <p>□ 사무국은 2025년 1월부터 인력 규모가 감소했음을 보고했음. 직원들의 업무량 증가로 인한 정신 건강 서비스 수요 증가에 우려를 표하며 AI 및 디지털화를 통한 행정 부담 경감 등 지원 조치를 지속할 것을 확인했음.</p> <p>□ 위원회는 글로벌 보건 아키텍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회원국 주도의 공동 프로세스 설계를 환영했음. 사무국은 이번 개혁이 WHO를 다시 중심에 세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음. 아울러 위원회는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파일럿 이행을 지지하며 보건총회 결의안 준비를 위한 템플릿과 체크리스트 등을 환영했음.</p> <p>□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의 지침과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국가 차원에서의 결과와 영향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음. 의장은 PBAC에서 다룬 의제들이 합의에 도달한 것에 대해 회원국과 사무국, 통역사 등에게 감사를 표하며 제44차 PBAC 회의 종료를 선언함.</p>	
⑤	귀국
일 시	5.16(토) 17:00 (제네바) ~ 5.17(일) 15:50 (한국)
장 소	스위스 제네바 국제공항 → 한국 인천 국제공항
참석자	조현경 연구원
- 제네바 출국 및 귀국	